



이 이야기는 성경에 기초한 단편 소설 묶음입니다

# 차 례

## - 니고데모

0)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	60
1) 사람의 뜻.....	62
2) 하나님의 뜻.....	74
3) 사람은 미워하나.....	87
4) 하나님은 사랑한다.....	102

니고데모  
*Nicodemus*

*By 287*  
*Feb 21st, 2019*



## 0)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

알지 못하는 것을 붙들고, 보이지 않는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다. 바로, 태초 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들이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백성에게 주님께서서는 율법을 통하여, 사람들이 죄를 깨달아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셨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늘의 것을 배우고 살아가려 한다 한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고, 그들의 태생 또한 땅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이들처럼 아담의 자손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몇몇은 여전히 믿음으로 하늘의 약속을 붙들며 손을 뻗길 멈추지 않았다. 땅의 백성은 자신의 두 발이 땅바닥에 붙어있음에 안도한다. 그들은 닿지 않는 하늘에

발버둥을 치는 저들을 바라보고, 안쓰러워하며 비웃을 뿐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하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온 것이다. 바라보던 이들에게는 평범한 세월이었지만, 기다리던 이들에게는 크나큰 은혜였다.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그를 보고 만지고 느끼며 살아가게 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깨닫지 못할 은혜 - 이것은 사람들이 원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었다. 지금 말하려는 이야기는 그들 중 한 사람의 이야기이다.



## 1) 사람의 소망 (The hope of men)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진실한 바리새인이자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신학자였다. 그렇기에, 그의 주변은 그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일들로 점철되곤 하였다. 그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선한 행동에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일이 매우 드물고, 공의가 일어나지 않음에 지쳐가고 있었다. 그런 연유로, 젊었을 적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가르치던 율법교사였던 이 남자는 이제 흘러가는 시간에 몸을 맡기며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바리새인들의 허울 좋은 모습 사이에서 슬피 방관하는 목격자로 살아가는 중이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각하고 있었던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자신의 주변 사람에게 전해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자신으로 인해 지금 바라보는 현실이 바뀔 일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니고데모라 불리는 이 바리새인은 자신의 이름을 공씩으며 회의감을 느꼈다. 지금 이 유대 백성들 가운데 승리한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인가?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가 무언가 잘못되도 단단히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아니, 애초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한 적이 얼마나 된단 말인가? 그들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예전 애굽부터 시작하여 앗수르와 바벨론을

비롯한 수많은 이방 민족의 핍박과 박해를 받아온 그의 고향땅은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왕국, 만방을 떨게 만드는 주님의 위상을 떨친 적이 드물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러하듯, 니고데모 역시 다윗과 같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왕, 이 땅을 악한 이방인의 손에서 구해내고 당신의 강인한 나라를 이루실 메시아를 기다려 왔었다. 한 때, 그도 순수한 기쁨이 가득차던 마음으로 이 예언을 기다리던 어린 시절이 있었다.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분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당신의 백성을 이끄시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야기, 주님의 은혜를 찬미한 다윗의 노래는 자신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 하였다. 해가 구름에 가리어질 때면, 옛 적 하나님께서 이끄신 기다란 구름 기둥이 있나 찾기도 하였고, 저녁에는 반짝이는 별들을 올려다보며 하나님과 자신의 조상들을 마음속에 기리곤 하였다. 그런 그를 찾으러 그의 부모님은 마을을 이잡듯 돌아다녀야만 했다. 그러나,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런 이야기들은 생각하면 할수록 자신의 속에서 더욱 빠져나가는 숨소리만 같았다. 자신의 입에서 내뿔으면 내뿔수록, 더욱 차오르지 않는 공복감이 그를 목마르게 하였다. 그는 옛 시절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옛 기쁨을 필사적으로 중얼거렸다.

**“사람이 무엇이관대…”**

하지만, 니고데모는 더이상 예전처럼 다음 구절을 읊조릴 수 없었다. 예전 주님을 향한 소망은 황혼이 넘어가는 나이가 되도록 그의 눈 앞에 나타난 적이 없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이어진 전능자의 침묵을 이해할 수 없었던 유대 사람들은 해가 지날수록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기쁨을 잃어가기 시작하였고, 로마의 압제에 다다른 최근에 와서는 자신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이란 자존감마저 잃어버리고 말았다.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린 사람들 중에 더러는 자신들의 손과 발로 일어나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자 하였고, 더러는 자신이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 소리치던 이들도 있었다. 이렇게 다양하고 무절제한 모습들 가운데 들리는 이야기의 중심은 한결같았다.

### **“임마누엘!(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대체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들의 갈증과 욕망으로 채워 앞에 세운들, 무얼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니고데모, 그도 하나님을 알려 무진 애를 써왔던 율법학자였다. 토라를 한 자도 빠짐없이 외우고, 각각의 말씀들을 이해하는데 거반 평생을 바쳤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걸수록 알게 된 비참한 사실이 하나 있었다. 자신이 이 말들을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친들, 자신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그 말씀에 합당케 살아가는 자는 아무도 없었던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인은



옛 동화에나 나올법한 사람, 자신의 시대에 있어선 꿈만 같은 존재라 여겼다.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여러 생각으로 깊은 근심에 사로잡혀 있을 그 때, 그의 앞에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났다. 요셉은 그의 오랜 친구인 니고데모에게 인사를 하며 말을 건네었다.

**“샬롬, 나의 형제여,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샬롬, 나의 벗이여, 주님께서 함께하기를.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 이 늙은이를 찾아오셨는가?”**

**“글쎄…묵상 가운데, 자네와 예전에 나누었던 구절이 떠올랐다네. 혹여, 자네의 신상에 무슨 일이 있나 염려되어 찾아왔지. 그런데, 지금 자네의 어둔 얼굴을 보니 오길 잘했다 생각하네. 친구여, 자네의 근심을 같이 지게 해주겠나?”**

요셉은 니고데모가 토라를 연구하던 젊은 시절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였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열정이 두터운 사람이자, 니고데모의 친구요, 스승과도 같은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어찌된 영문인지, 자신을 찾아와 말을 건네고 있었다. 이처럼 기막힌 때에 인도되어 찾아온 친구였건만, 니고데모의 눈이 어두워 이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다. 그저, 자신을 바라보는 요셉을 대면한 채, 마른 입술을 적실 뿐이었다. 니고데모가 말이 없자, 아리마대 요셉이 그에게 다시

얘기하였다.

“니고데모,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칠 적부터 서로에게 스승이자 친구가 되었고, 지금도 그 우정은 변함없다 생각하네. 자네가 찬양받기 합당하신분의 업적을 노래하듯이 이야기할 때면, 내 마음은 잔잔한 물가에 있는 듯 했지. 그렇기에, 힘들 때에도 자네를 통해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다네. 현대, 요즘 내가 보는 친구는 남이 도울 수 없는 짐으로 무너질 것만 같으니, 내 마음이 편할리가 있겠는가? 누구보다도 선생으로서 하나님의 업적을 가르쳤던 사람은 자네가 아닌가? 조금이나마 그 짐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게.”

요셉은 다른 공회인들에게서 눈 밖에 난 인물이었다. 그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답게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는 이였기에, 로마의 권력에 위축되어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그는 너무나 순진하고 무모한 사람처럼 보였던 것이었다. 니고데모는 이젠 어엿히 흰 수염으로 뒤덮여 있는 자신의 동지를 바라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따라 떠나갔고, 먼지처럼 사라져갔다. 물론, 메시아의 임재를 기다리는 그였지만, 뒤틀린 이들을 떠나 보낸 지난 세월은 니고데모의 마음에 커다란 상처로 남아, 이웃들을 향하여 큰 벽을 세워두고 있었다.

“자네가 그 누구보다도 전능하신 분을 기다리는 자임을 알기에, 내 속내를 털어놓겠네. 내게 자네 같은 친구를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네. 요셉, 자네는 내 속을 들여다 볼 수 없을테지만, 나는 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낮고 천한 사람일세. 자네가 계속 얘기하던 말씀을 가르쳤던 기쁨은 내 과거 속에 머무르고 있다네. 내 마음속에 있던 즐거움은 옛 무화과 잎사귀처럼 시들은 듯 하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하신 백성이잖나. 어찌 그런 말을 하는 겐가?”

“그래, 하나님의 백성!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런데, 난 더이상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민족의 구별되는 점을 찾을 수 없다네. 지금 우리 모습을 보게. 야훼의 말씀만을 붙드는 이들은 다 변질되거나 타락하여 살아가고 있네. 젊은이들은 응답조차 없으신 하나님을 기다리다 못해, 자기 멋대로 그분의 뜻을 받아들여 해매이고 있고. 내 친구여, 말해주게. 대체, 그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 행하고 있는가 말일세! 우리의 입술은 더이상 공회에 영향을 주지도 못하지 않는가? 남들을 도울 수 있는 조그만 재력과 존경이 다 무슨 소용인가?! 저 세상 권세, 로마에 굴복한 자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자신의 위신을 챙기는 자들이 저리 군림하고 있겠만! 어찌 만군의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에 침묵하시고 방관하신단 말인가?!”

요셉은 눈빛이 흐려져 소리치는 니고데모를 안타깝게 바라보았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불안한 정세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을 간과할 수 없었기에, 그는 자신의 친구가 고백한 탄식을 이해할 수 있었다. 니고데모의 얘기를 다 들은 요셉이 그의 친구에게

대답하였다.

“니고데모, 나의 형제여, 아무리 우리가 희망이 없다 한들, 주님께서서는 여전히 그분을 믿는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겠나? 자네가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불들 귀중한 등불임을 잊지말게. 적어도, 자네의 가르침은 내 위로이자 힘이 되었다네.”

자신의 가슴에 쌓여있는 분노와 절망을 친구에게 퍼부은 니고데모에게, 요셉의 위로는 그의 마음에 가시가 되어 박혀왔다. 가책을 이기지 못한 그는 고개를 떨구어, 자신의 친구에게 용서를 구하였다.

“미안하네, 요셉…주님 앞에서 날 용서하게나. 자네는 진실로 나의 선생일세. 그저…난 그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을 뿐일세. 한점만이라도 알 수 있다면, 내 선한 욕심이 조금이라도 채워진다면, 이 남은 생애에 더이상 여한이 없겠네.”

둘은 서로를 위로하며 헤어졌다. 거처로 돌아가는 요셉을 바라보며, 니고데모는 그가 자신에게 고백한 잔잔한 물가를 느낄 수 있었다. 요셉은 그 날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의 친구 곁에 함께하였고, 니고데모는 그런 그의 모습을 부러워하며,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고 계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였다.



어느덧, 변함없이 유월절이 다가오자, 수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니고데모는 요셉과 나눈 대화를 곰씹으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려 성전의 솔로몬 주랑을 산책하고 있었다. 행여나 자신의 마음이 주님께 달을까 싶은 그의 바람 때문인지, 그의 발걸음은 쉴 줄 모르고 서성이고 있었다. 그 때였다. 갑작스레 동물들의 울음소리와 상이 엮어지는 소리, 동전들이 쓰러지는 소리와 사람들이 소리지르며 도망치는 발걸음 소리가 일제히 들려왔다.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성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 갑작스런 소동에 무슨 일인가 여겨, 부산스레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들었다. 성전에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이 전무하였기에, 니고데모도 무리 가운데 섞여 이 소란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처음 그가 목격한 것은 잣더미처럼 어지럽혀진 성전 뜰의 모습이었다. 동물들이 이곳저곳으로 뿔뿔히 흩어져 있었고, 동전들은 거리에 내다버린 암염처럼 흩뿌리듯 나뒹굴고 있었다. 그는 또한, 한 무리가 소란이 일어난 성전 광장에 서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 중심에는 남들보다 작고 마른 외관을 가진, 촌스런 시골 청년이 노끈으로 만든 채찍을 들고 서 있었다. 비루한 그의 모습에, 니고데모도 한순간, 과연 이 자가 이 모든 일을

저지른 장본인인지 의심이 들 정도였다. 하지만, 청년의 얼굴은 성난 사자와 같았다. 그의 행동은 마치 느헤미야의 모습을 대변하는 듯 하였으나, 사람들의 눈에는 이처럼 기이한 행동을 찾아보기도 힘들었다. 미친 사람도 하지 않을 께판을 거리낌없이 저지른 이 청년을, 사람들은 이상히 여기며 바라보았다. 그가 기도하는 주님의 성전을 알린 담대한 일보다는 자신들의 율법과 제사장들을 향한 적대가 더욱 눈에 띄었던 것이었다. 놀란 사람들이 그에게 소리쳤다. **"당신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저지르세요? 그만한 권리를 가졌다면, 이것을 입증할 만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한 치의 주저함 없이, 노끈을 든 청년이 소리쳤다. **"이 성전을 허무시오!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더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다. 대체 저 자가 누구인지, 무슨 권리로 이런 말과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일을 저지른 청년의 지인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이 이 말을 내뱉은 청년을 미쳤다 생각할 때에, 니고데모는 다른 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이 함께하였다. 저 자가 외치는 말들은 하나님의 의분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는 너무나 대담한 청년의 대답에 혀를 펴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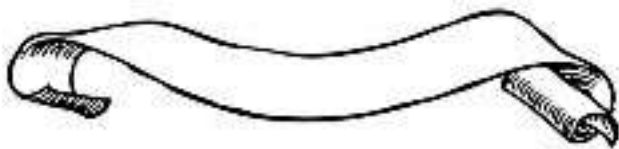
**‘그는 거룩하게 미친 선지자다!’**

니고데모는 사람들 앞에 선 청년에게서 말씀의 위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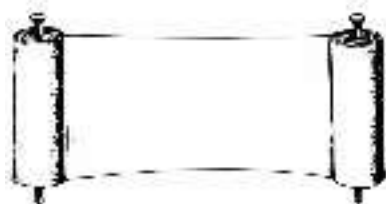
있음을 느꼈다. 비록 저 이상한 선포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만, 거부감보다 더 큰 청년의 선포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 익숙해져 넘어가는 건지 모르나,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에 트집을 잡곤 하였다. 그들은 성전에서 준비한 동물들만을 허락하여 비싼 값에 팔아, 자신들의 이득을 쏙쏙히 챙기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걸만 거룩하던 말라기 시대의 부정한 제물들은 온데간데 없었다. 사람들이 넘어가는 악한 것들과 하나님만 계셔야 하는 성전, 그 안에 잔류한 사람들의 죄악을 깨부수듯이, 사람들 눈앞에 있는 이 청년은 날이 선 채찍을 든 것이다. 여기 있는 이들 중, 그 누구도 이런 담대한 행동과 답을 펼치지 못하리라. 지금 니고데모 앞에 있는 청년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듯,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을 향하여 화내며 다그치고 있었다.

이 사건 이후로, 요셉과 니고데모를 포함한 몇몇 소수의 학자와 제사장들은 이 사람, 예수란 자가 저희를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 생각하여, 그를 주시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성전에서 일어난 일 외에도, 유월절 기간동안 이 청년이 행한 하나님의 말씀과 표징을 보게 되었다. 하지만, 니고데모가 의아해 할 정도로 학자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낮은 이의 가르침을 거부하던 자신의 동료 대부분은 예수의

말에 동조하지 않거나 이를 비웃었다. 때때로 이해 못할 말들과 가르침으로, 어떤 이들은 이 청년이 한 일들에 의아해 하거나 신기해하며 그만일 뿐이었다. 하지만, 니고데모에게는 그의 가르침, 그의 기적들이 자신의 삶 속에 찾아온 그 어떤 것보다 달디단 열매였다. 지금 이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선, 이런 가르침을 베풀지 못 할 일이었다. 인자를 칭하는 예수는 사람들의 미움과 존경을 동시에 받고 있었다. 이 청년을 알게 된 날이 흐르면 흐를수록, 니고데모의 마음에 큰 불길이 일듯, 뜨거운 열정이 그를 사로잡았다. 혹시 이 자라면, 자신이 평생 가져온 소망 -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비어버린 갈망을 채워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 생각만으론 만족하지 못하게 되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한 자였다. 그 마음이 이 낯선 청년과 더욱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게끔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바리새인으로서, 자신의 많은 동료들이 예수를 욕하고 있는 판국에, 맘 편히 찾아갈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었기에...그래, 사람들이 많은 대낮은 무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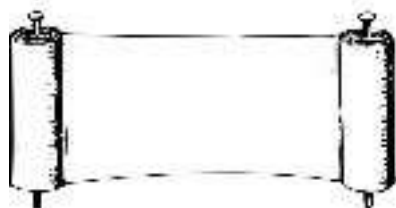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 버리시고, 상을 둘러 었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요한복음 2:13-17)



## 2) 하나님의 소망 (The hope of God)

사람들이 잠자리에 든 고요한 저녁 무렵,  
니고데모는 그림자에 몸을 숨긴 채, 예수란 자가  
머무르는 집으로 발걸음을 향하였다. 거처는 자신의  
종에게 일러, 그들이 오늘 어디서 묵을지 미리 확인을  
마친 상태였다. 대체 이 자는 누구란 말인가?  
예언자인지, 소위 말하는 메시아인지 감이 잡히질  
않았다. 그가 가르치는 말들 중에선, 니고데모조차  
이해하기 힘든 말들이 비일비재하였다. 하지만, 그자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들은 너무도 감미로와, 지금도  
헤매이는 그의 마음을 넉넉히 사로잡아 이끌고 있었다.  
이 청년을 향한 생각이 커질수록, 니고데모의 발걸음은  
더욱 그를 재촉했다. 아직 자신의 마음에 확신이 드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난생 처음으로 간접적으로나마  
들을지 모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무엇보다  
간절하였던 그는, 서둘러 예수가 머무르는 집으로  
향하였다. 니고데모는 자신이 직접 듣고 판단하리라  
마음먹었다. 아직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이 길을,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었다.

마침내,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묵는 집에 다다른  
니고데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불빛을 보아하니,  
집안의 사람들은 아직 잠자리에 들지 않는 듯 하였다.  
니고데모는 한 손으론 자신의 얼굴을 가리우는 천을

물삼고, 다른 한 손으로 예수와 그의 일행들이 복고 있는 방 문을 두드렸다. 곧 얼마 되지 않아, 그가 성전에서 봤던 사람 중 하나가 살며시 문을 열고 그에게 물었다.

**“누구시오? 대체 무슨 일로 이 한밤중에 오시었소?”**

니고데모는 그의 목소리에 일말의 두려움이 섞인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기사, 성전을 그리 초토화 시켜 놓았으니…그는 목을 가다듬고 나즈막히 속삭였다.

**“그저, 이름 없는 늙은이가 당신들이 따르는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왔네. 걱정 마시게나. 온전히 개인적인 일로 찾아왔고, 보시다시피 미행한 사람도 없소이다.”**

기다리라는 말과 함께 문이 다시 닫히었고, 그 안에서 잠시동안 말들이 오갔다. 잠시 후, 다시 문이 열리고, 예수의 일행이 니고데모 앞에 나타났다.

**“선생님께서서 어르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니고데모는 자신에게 문을 열어준 사람 뒤에 붙어 집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여러사람이 모여있었다. 더러는 궁금해 하며, 더러는 경계하며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니고데모가 성전에서 봤던 청년이 한결같은 눈빛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니고데모는 그를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다. 남들보다 왜소한 몸매, 다소 유약해 보이는 얼굴, 등성등성 나있는 수영은 뺨뺨하여 돼지털 같았다. 마치, 못생긴 여인이 어설프게 남장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예수께서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고 계셨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그가 남들의 시선과는 달리, 자신의 말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예수라 불리는 이 청년의 눈빛을 보고, 더이상 주저할 필요가 없음을 알았다. 그에게서, 그토록 찾던 하나님의 진리를 듣게 되리라는 소망이 자신을 잡아당기고 있었다. 니고데모는 그의 앞에 앉아있는 젊은이에게 선생의 예우를 갖춰 인사를 한 뒤, 자리에 앉아 말을 건넸다. 니고데모에게 있어, 그는 랍비(선생)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청년은 노인을 지긋이 바라보았다. 이윽고,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깊이 선포하셨다.

***"제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어르신께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청년이 하는 얘기를 듣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의 심중을 꿰뚫고 계셨던 것이었다. 남들이 듣기에는 아무슨 똥딴지 같은 대답이겠으나, 니고데모는 저 랍비가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된건지 알고 있음을 확신하였다. 그럴기에,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며, 주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일터...

이 자가 말하고 있는 거듭남이란 어떤 뜻이란 말인가...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니고데모의 앞에 계시던 예수께서는 말을 이어가셨다.

**“제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어르신께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듭남은 예수께서 언급하신 생소한 언어로 니고데모에게 다가왔다. 그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대답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거듭남이 아니라면, 대체 지금까지 사람들이 기다려 온 하나님의 구원은 정녕 무엇이란 말인가? 자신과 자신 조상들이 평생을 지켜온 정결의식과 주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들이 구원에 다다르지 않는다니! 사람들이 이를 저버릴 때마다, 주님의 벌이 엄중히 임하였던 하나님의 율법이?! 지금 이 청년은 사람들의 생각처럼 율법을 행함이 그들의 구원에 완전치 않다는 사실을 서스럼없이 내뱉고 있는 중이었다. 물에 관한 이야기는 이전에 들은 기억이 있었다. 사람들에게 선지자라 불리며, 자신의 동료들에게 저주를 퍼붓던 과묵한 선생이 그의 사람들에게 펼친 일이었다. 떡도 포도주도 즐겨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한 사람이었다. 그의 외관과는 다르게, 그의 말은 니고데모를 포함한 많은 이들에게 깊은 찰림을 주었다. 하지만, 지금 이 청년이 하는 이야기는 회개를 넘어서는 말이었다. 몇 세대를 거치며, 존귀하신 분의 이름 아래 계속 유지되던 하나님의 율례가 구원에 합당치 않는다면, 사람은 대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주님 안에서 얼마나 의롭게 살아가길 힘써야 되는 것이 아닌, 정말로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다니…그럼 이 자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거룩히 지키라 주신 율법들이 구원에 합당치 않다 말하는 것인가!’**

그런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예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은 물 흐르듯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육신에서 난 것은 육신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입니다. 그렇기에, 어르신께선 제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프누마(바람)는 불고 싶은 곳으로 불니다. 그 소리는 들겠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프누마(영)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이와 같습니다.”**

니고데모는 이해는커녕, 이 말씀을 받아들일 여유조차 없었다. 유대 사람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살아온 그에게도, 이 말씀은 새로운 세계나 다름없었다. 영에서 난 사람을 본 적도 없는데, 영을 어찌 이해한단 말인가? 견잡을 수 없이, 반발 섞인

질문이 그의 마음속에서 튀어나왔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그보다 옛되신 예수께서 질타하시는  
말씀은 세상에 찌든 니고데모의 악한 본성과 인지  
못했던 오만함을 들춰낼 뿐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르신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십니까?! 제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당신께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도, 여러분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여러분이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으시렵니까?”**

예수의 말씀은 니고데모의 정곡을 찔러, 그가 속한  
세상을 여실히 드러내셨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간직하였으나, 이제 그 소망을 자신의 절망감으로  
변질시킨 니고데모에게, 이 청년은 그의 믿음이 없음을  
꾸짖고 있었다. 자신의 물음에 답을 찾으려 한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는 하늘의 비밀을 알리고  
계셨던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 나사렛 예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작은 노인에게 당신을 알리고 계셨다.  
니고데모가 들은 이야기 중 가장 해괴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똑같이 들려야 하는 것은, 인자를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니고데모는 혼란에 빠졌다. 자신의 이해의 범주를 벗어난 대답과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온 그는 또다른 고민에 빠지고 말았다.

‘자신을 스스로 메시아라 얘기하면서, 모세의 구리 뱀처럼 들려야 한다니! 이 자의 말은 어찌 이다지 모순되고, 이 자의 고백은 이리 상반된단 말인가?!’





메시아는 지금도 높은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절망 가운데서  
구해내야만 한다. 그런데, 자신을 메시아라 얘기하는  
이 자는 메시아가 죽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니고데모는 한순간 수많은 감정에 휩싸였다. 지금 자기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신의  
마음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꿰뚫어보았고, 자신도  
모르는 무지와 오만함을 지적하였다.

**‘이해가 가질 않는다! 이해할 수가 없어!’**

대체 이것이 젊은이에게서 나올 말과 위엄이란 말인가?  
니고데모가 품고 있던 원래의 목적은 자신이 감당치  
못할 말들로 꼬여만 갔고, 그의 마음속에선 오만가지  
생각이 요동치고 있었다. 바로 그 때였다. 니고데모의  
앞에 앉아계시던 예수께서 손을 내미셨다. 그의 얼굴은  
마치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랍비(선생)와 같았다.

**“따라 오시죠.”**

갑작스런 제안에 어안이 병병해진 니고데모의 앞에,  
예수께서는 미동도 아니하시고 그를 기다리고 계셨다.  
두려워 말라는 듯이, 자신을 바라보며 서 계신 모습을  
본 니고데모는 마침내 그의 손을 잡았다. 니고데모가  
일어나자, 예수께서 집 문을 열고 그 집의 옥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셨다. 니고데모는 순간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보게 되진 않을까 걱정이 되어 그의  
손을 놓았다. 그와 동시에, 그 방에서 나가길 주저하는  
니고데모를 향하여,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걱정 말고, 나를 따라 올라오시오.”**

니고데모의 발걸음이 예수의 목소리에 반응하여 다시 움직였다. 그는 그 소리를 따라서, 계단을 걸어올라 그 집의 옥상에 다다랐다. 니고데모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자신을 볼 수 없음은 물론이요, 그 주변 일대에 모든 곳들이 잠적한듯, 불빛 하나 없이 깜깜하였다. 달빛도 없어, 어느 때보다 더욱 어두운 밤이었다. 그 가운데, 니고데모는 칠층 같은 어둠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의 윤곽을 볼 수 있었다. 하늘을 향해 있던 그의 눈길은 어느새 니고데모 자신에게로 향하여 있었다.

**“아직 깨닫지 못하였소?”**

니고데모는 그의 얼굴을 확연히 볼 순 없었지만, 그가 자신을 보며 애잔하게 웃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시고, 그의 눈길이 다시금 하늘을 향하였다. 니고데모도 자연스레 자신의 눈길을 하늘로 향하였다. 수천, 수만개의 별들이 여전히 같은 별빛으로 그에게 인사하고 있었다. 이게 얼마만인가...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 다짐하였건만, 그러지 못하였다. 그는 저 빛나는 별들보다 낮은 존재였다. 말을 잃어 자신 앞에 있는 청년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분의 목소리는 사랑과 위엄으로 충만하였다. 그의 손이 니고데모의 손과 한데 포개어져, 하늘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에,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니고데모는 큰 착각을 하고 있었다. 자신이 지켜봐왔던 이들만이 눈 먼 자들이 아니었다.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떤 사람이 주님의 뜻을 헤아리려 한들, 주님의 프뉴마(영)를 이해할 수도, 조언할 수조차 없는 것이었다. 지금, 그의 마음에 새로운 빛이 쏟아지고 있음을 니고데모는 깨닫지 못하였다. 아직, 예수께서 당신의 영광을 다시 입으시고,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사람들의 눈을 밝히신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이 심판이란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악하였기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걸 말합니다. 즉, 악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하여,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오지 않지만,”**

예수께서 합한 두 손을 니고데모의 가슴에 대시며, 니고데모에게 마지막 말을 전하셨다.

**“하지만,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와,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 합니다.”**

예수께서는 니고데모를 똑바로 주시하며, 이 마지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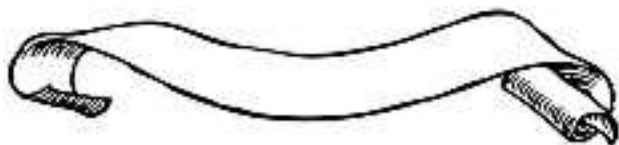
말씀을 마치셨다. 어릴 적부터 길 잃은 고아가 부모를 찾아 헤매듯 살아온 니고데모, 또 주님을 믿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이었다.

청년 앞에서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노인은 어린아이처럼 자신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말씀을 이해하려 씨름하길 그쳤다. 자신의 지혜와 힘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마치 자신의 지혜 너머의 지혜, 자신이 알고 싶은 것 뿐만이 아닌, 자신이 알아야 할 진리를 모두 들은 기분이었다. 심지어, 니고데모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이 자는 나를 어찌 알고, 이런 말을 한단 말인가?!’**

니고데모는 두렵고 놀란 마음에, 잡고 있던 손을 놓았다. 예수께서도 그의 마음을 아셨는지, 동시에 손을 놓아주셨다. 이후, 니고데모는 인사를 하는 동안 그 자리에서 떠나, 자신의 집으로 달음질쳤다. 얼굴을 가릴 생각은 이미 머릿속에서 떠난지 오래였고, 사람들이 있을까 두려웠던 마음은 그의 앞에 드러날 틈도 없었다. 한걸음 자신의 집에 다다를수록,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온갖 생각이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했다. 자신의 집 문 앞으로 도망치듯 돌아와서도, 마음속 깊숙히 스며든 이 의문은 가시지 않았다. 그는 조금전에 자신을 하늘로 이끈 청년을 기억하였다. 이것이 의도한 것이었다면,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을 알던 그의 부모와 이웃들은 세상을 떠난지 오래였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레 멀어져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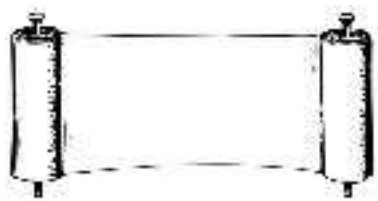
그의 선한 버릇은 자신의 마음과 함께 저버린지 한참이었다. 주님을 향한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주님의 일하심은 그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다. 소망을 잃어 말라 비틀어진 니고데모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흔들여 놓으셨다. 병을 고치던 선지자도, 지도자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견자도 있었다. 하지만, 예언서 그 어디에도 선지자가 이름 없는 이의 모든 삶을 꿰뚫어보고, 이에 간섭하였던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었다.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디에도, 그 누구도 자신을 온전히 알지 못 할 터였다. 이 세상 가운데는…그 날 저녁, 니고데모는 뜻 모를 눈물을 쏟으며 잠자리에 들었다. 그의 예상과는 달리, 예수께서는 한낱 선지자가 아니셨다.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요한복음 3:31-36)



### 3) 세상은 미워하나 (People hate)

**“어찌하여 그 자를 데려오지 않은게냐?!”**

초막절 기간 동안 다시 예루살렘에 찾아오신 예수께선 당신을 스스로 드러내셨고, 바리새인들의 침묵이 더하여져, 사람들간에는 수많은 논쟁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다. 더러는 그의 좋고 나쁨을 이야기하였고, 더러는 그를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라 여기기도, 어떤 이는 이 자가 사람들이 기다려 온 메시아인가 생각하기도 하였다. 예수께선 성경에 박식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위선을 꿰뚫어보시고, 이들의 가식을 대낮에 말들로 날날히 드러내 보이셨다. 이에 분노한 바리새파 지도층에선 죄인인 예수를 체포하라 명하였지만, 그를 잡으려 간 성전의 경비병들도 예수의 진실된 말씀과 그분의 위엄 앞에 탄복하여, 그저 빈손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었다.

**“이 자가 말하는 것처럼 말했던 사람은 여태껏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비병들의 경의에 찬 대답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더욱 치를 떨었다. 그들은 경비병들의 무능함을 탓하면서, 예수를 체포하지 않은 그들의 행동을 욕하였다. 이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회의 가운데, 니고데모는 자신이 만났던 나사렛 예수를 조용히 떠올리고 있었다. 집에 돌아가 정신을 차린

그는 다시 한번 날을 잡아 예수께서 머무셨던 곳에 방문하려 하였지만, 이미 예수와 그분의 제자들은 그 집을 떠나고 없었다. 그 뒤로 지금까지, 니고데모는 그에 관한 소식을 당신을 대적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서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에게 저주를 퍼부으신 이야기, 죽은 이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며, 세상에 대접받고 있는 깨끗한 이들보다 더러운 이들을 눈여겨 보시는 언행 등, 모든 것이 현재 그들의 지위와 위엄을 깎아내리고 있었다. 지도층 사람들이 그의 말에 화를 내는 건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들이 듣고, 전하며, 험담하는 말의 이면 가운데는 하나 일관된 의견이 존재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욕하는 이들의 더러운 모습을 보고 욕하였지만, 그 반대로, 자신들의 경건함으로 다져진 예배의 삶을 보면서, 그들은 스스로를 깨끗하다 여겼다. 니고데모는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자신들이 지켜왔던 정결예법, 실제로 눈에 선힌해보이는 개인의 선행, 사람들이 여기는 모든 깨끗함이 하나님의 구원에 다다를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깨닫기 시작하였다. 자신들이 지켜온 주님의 율법도 중요한 것이었지만, 제사보다 순종이 나으며, 주님을 향한 올바른 금식은 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버림받은 이들의 마음을 돌보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는 선행이 아닌,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라보시는 곳을 향하여 그들의 눈길을 돌렸어야만 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낮은 자들을 향하고 있어왔음을 이제 온전히 알 것 같았다. 자기의 눈에 아무리 불결하고 더럽다 한들,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도 당신의 귀한 백성이었던 것이었다. 오히려, 더러운 이들을 더럽다 여기며, 자기도 모르는 새에 자신을 낮출 수 없어 스스로를 높이고 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더욱 악하게 보셨다. 그렇기에, 지금 니고데모 앞에서 예수의 말씀에 호감을 나타내는 우리들을 향해 소리치며, 폭언을 일삼는 가야바 일행의 말은 그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그의 장인이자 전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힘을 입고, 제사장 직을 물려받아 권력의 정점에 선 인물, 어찌보면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자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제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죄인임을 니고데모는 알 수 있었다.

**“너희도 꾀임에 넘어간 건 아니겠지?”**

화가 가득찬 말에, 니고데모는 흠칫하여 그 말을 한 자신의 동료들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죽음이 가득하였다. 회의장에 모여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우리들은 바깥에 있는 시끄러운 군중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다. 단단한 대리석과 같은 그들의 마음은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증인으로 세워 당신을 증명하시는 것과는 반대로, 자신들을 내세워

그들의 뉘음을 증명하려 하였다.

**“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믿는 자가 어디에 있단 말이더냐? 허나, 이 율법(토라)도 알지 못하는 군중들은 이러하니, 저주를 받은게다!”**

사악한 말에 불편한 감정이 일면서, 니고데모의 마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드러났다. 진리를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나타내려는 자. 명백히 이들의 행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모습은 아니었기에, 니고데모는 앞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호통쳤다. 적어도 그가 알기론, 예수,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임이 확실했다.

**“우리의 율법이란 것이,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판결한단 말이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의 이목이 그들에 반대하는 말에 쏠렸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동시에 고개를 돌려 니고데모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경비병들에게 퍼붓던 자신들의 화를 그에게로 돌려 억박질렀다.

**“자네도 갈릴리 사람이란 말인가?! 성경을 살펴보면,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쯤은 알 것 아닌가!”**

결국, 그들의 회의는 아무런 해결도, 조치도 없이 끝나고 말았다. 그저, 예수란 작자가 자신들과 율법을 알지 못하는 비루한 백성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이야기만 관철할 뿐이었다. 이제, 그들의 귀에는 예수의 이름만 들려도 부정한 것인 마냥 손사래를



쳤다.

회의가 끝나고, 니고데모의 곁에 다른 이들이 붙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눈에는 조금 전 니고데모의 발언으로, 불안과 불신이 가득하였다. 전부터 아니꼬운 시선이 있긴 하였지만, 예전과는 달리 그들이 인지 못하는 살의가 그들의 눈에 담겨 있었다. 그 모습에, 니고데모도 섬찟하여 놀랄 수 밖에 없었다. 가야바를 비롯한 다른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지금까지 조용히 잘 지내오지 않았나? 대체 무슨 심보로 그런 이야기를 했던 말인가? 저 사람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네. 저 자는 우리와 이 나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자란 말일세! 만에 하나 저 사람이 옳다 한들, 로마에서 가만히 있을거라 생각하나? 우리의 씨를 말리려 찾아올걸세! 자네는 자신이 주장하는 말 한마디가 민족 전체에 해를 끼친다면, 어떻게 행동하겠나?”**

그들은 이 말을 마치고, 니고데모의 곁을 떠나갔다.

그들은 가야바를 중심으로 서로 둘러붙어, 어떻게 하면 예수를 해할까 비밀스레 논의하였다. 이 모습을 지켜본 니고데모의 지인들은 그가 가야바 무리에게 낙인찍히듯 경계의 대상이 된 사실을 깨닫고, 그의 주변을 피하기 시작하였다. 오직, 예수께 호의가 있거나, 몰래 니고데모의 말에 찬동한 자들만이 그와 함께할 뿐이었다. 그들 중 하나인 요셉은 그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다. 자신의 친구가 이 예수란

사람을 자신처럼 생각하는지 알고픈 마음이었다.

**“자네는 그를 누구라 생각하는가?”**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어릴 적부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였던 두 나이든 청년은, 이제 서로에게서 존귀하신 분의 때가 임하였는지를 묻고 있었다.

니고데모는 한참을 뜰들이다가, 하나님께, 또한 자신에게 솔직한 마음으로 요셉의 질문에 답하였다.

**“나는 그가 메시아 일지도 모른다 생각한다네.”**

요셉은 친구의 고백을 들으며, 예수를 향한 자신의 믿음에 확신을 가졌다. 니고데모도 자기 앞에 있는 동지의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을 나사렛 예수께 굳히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주님을 입술로 시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들먹이는 이들은 그를 시기하던 가야바의 무리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위신과 존경을 예수란 나사렛 촌놈이 짓밟개고, 이를 독차지한다 생각하였다. 그들의 살인하는 마음은 더욱 커져만 갔고, 예수를 해하려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깊고 은밀히 자리잡았다. 예수를 지독히도 거부하던 사람들은 그 때부터, 예수에게 호의가 있거나 자신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이들을 멀리하면서, 자신들의 대화나 모임에 참여치 못하게 막기 시작하였다. 니고데모가 예수의 이름을 그들 앞에서 변호하고 난 직후 일어난 일이었다.



예수를 지지하는 이들은 비밀리에 그분을 옹호하였기에, 그 영향력은 미미하였다. 하지만, 그분에 관한 기적적인 이야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들의 심증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자신들의 일원인 바리새인들의 이중적인 잣대와 오만함을, 눈 먼 거지를 통해서 나타내신 분의 지혜는 그들의 숨겨진 당당함에 답답해하던 사람들에게 큰 해방감을 주었다. 니고데모와 요셉을 포함한 이 무리는 자신들의 위치가 신경쓰여 당당히 예수를 만나러 가진 못하였지만, 다시 그분을 만나길 남몰래 고대하고 있었다. 다른 바리새인들이 무서운 것은 아니었다. 만약 예수께서 백성들이 고대해 마지않던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당신의 왕관을 요구하신다면, 언제든지 엎드리어 왕으로 모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저, 아직은 온전한 때가 아니라 여기고 있을

뿐이었다. 그들의 생각이 높기라도 한 것처럼, 예수와 그분을 따르는 무리의 행보는 메시아의 길과 전혀 상관이 없는 듯 정처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았다. 그들에게 간간히 들리는 소식은 예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과 말씀으로 많은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고 있다는 이야기 뿐이었다. 메시아는 주님의 백성을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하고, 당신의 나라를 높이 세우실 분일텐데…아직은 때가 아니란 말인가? 유월절은 또 다가오고 있었다. 니고데모는 다시금 회당 주변에 쌓여있는 동전과 제사에 바칠 동물들, 탐욕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지켜보았다. 이번엔 반드시, 반드시 나아가리라. 그는 이번 유월절에 예수를 다시 만나, 모든 것을 여쭙 생각이었다.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 기간이 다시 돌아왔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동료들과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 제자들의 호위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많은 무리가 자신들의 겹옷을 벗어 바닥에 깔거나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길에 내려놓으며, 나귀를 타고 오는 경손하신 분을 맞이하였다. 사람들은 기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군중들의 외침을 들으며, 니고데모는 한가지 진실,

자신 안에 숨겨져 있던 하나의 확신을 깨달았다. 니고데모의 머릿속에 머물렀던 지혜가 그의 가슴에 녹아내려, 온 몸으로 퍼져 나가고 있었다. 이제는 귀로만 알던 진실을 눈으로 알 것만 같았다.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나사렛 예수는 한낱 선지자가 아니었다. 그는 바로 그들의 왕이었다.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사, 그분의 강한 나라에서 저희를 평안히 살게하실 분이셨다. 예수를 옹호하는 이들은 그를 반대하는 우리가 다 끝났다며 절망하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더욱 확신을 가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고, 마침내 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눈 앞에서 지켜보아 기뻐하였다. 그들의 비밀스런 기쁨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먼저, 성전이 다시 한번 말끔히 뒤엎어졌다. 다시 깨끗해진 성전에 계신 예수께서는 성전의 뜰과 주랑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요셉은 자신의 주변 사람 중 누구보다 앞서, 그분의 말씀에 경청하였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친구와는 달리 아직 가까이 다가서진 못하였지만, 먼 발치에서 예수의 무리와 함께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아서 죽였습니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하였을까요? 주인은 와서 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에 웃고 떨어졌다. 예수의 가르침은 때론 거칠고 의아했고, 때론 꿀 같은 단내가



났다. 니고데모는 이 유약해 보이는 인자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실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다. 그런 그의 마음을 대변하듯, 아이들은 성전 뜰에서 소리치며 뛰놀고 있었다.

###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이 기쁨!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모든 것이 총만하여 넘칠 것만 같았다. 그러나 이 총만함 가운데, 니고데모는 그런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 나락으로 떨어 사건이 진행되고 있음을 깨달지 못하고 있었다. 그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할 일이었다. 하나님만이 아실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유월절 전 날, 차가운 새벽 바람을 뚫고 여러 사람들이 긴급히 의회에 소집되어 회의장에 모이고 있었다. 니고데모와 요셉을 비롯하여, 신성한 날이 다가오기 전에 이 무슨 해괴한 일인가 근심하는 무리, 이 모든 일을 알고 계획한 무리가 나뉘어 한 자리에 모여들었다. 너무나 갑작스런 모임이었기에, 사람들은 서로 경각심을 품은 채, 이 회의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병졸들에게 결박되어 끌려오신 예수를 보게 되었다.

### **“무슨 일이오, 가야바?! 이게 무슨 짓이오!”**

예수를 옹호하는 이들은 당황코 두려운 마음에, 격분하여 가야바에게 이 일을 따지려 하였지만, 실제 그 자리에서 그를 변호하려 입을 여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가야바는 이들의 존재를 철저히 무시하면서, 예수를 추궁하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이 사람이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만에 세우겠다'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거짓 죄가 드러나는 예수께 아무런 말도, 변론도 할 수 없었다. 당혹감에 아무 말도 나오지 않거니와, 그를 망령되이 일컫고 거짓 증언하는 자신의 동료들은 예수를 옹호하는 이들의 반응을 철저히 목살하고 있었다. 그들의 뜻과는 달리, 하나님의 은총은 예수와 함께하지 않았다. 그들이 할 일은 두려움에 조용히 입을 다물고 이를 방관하는 것 뿐이었다. 예수를 향한 거짓된 추궁은 쉬지 않고 이어졌다. 마침내, 계속된 증언에도 침묵을 지키시는 예수를 지켜보던 가야바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물었다.

**"대답하지 않을겐가? 자네가 정녕 결백하다면, 자넨 거역하는 이 사람들이 증언하는 것들은 다 무엇이란 말인가?"**

그의 조롱하는 물음에도, 예수께서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셨다.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지친 대제사장은 예수 앞에 서서, 사람의 위엄으로 그에게 다시 물었다. 가야바는 세상이 받아들일 수 없는 진실을 증언하라 외치고 있었다.

**"내가 너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케 하노니, 네 놈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인지 우리에게 고하거라!"**

그러자, 예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셨다. 당신께서 사역하신 삼 년여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고백하시고 드러내신 진실이었다. 다만, 지금 당신 앞에서 진실을 추구하는 이들은, 자신의 옳음을 나타내려 그 진실을 강요하고 있을 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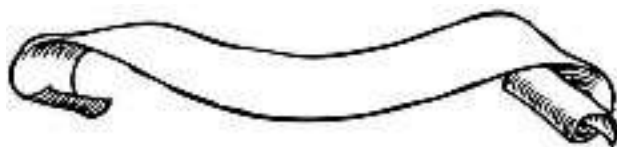
**"당신이 말하였소. 내가 바로 그요(I am Who I am).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말하오. 이제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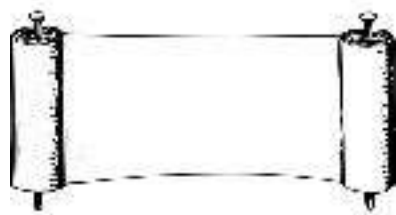
이 말을 들은 가야바는 자신의 옷을 찢으며, 더이상의 추궁은 필요없다 사람들에게 공표하였다. 예수를 죽이기 위해 자리에 모인 이들 전부가 사형에 동조하였고, 그들의 부하들은 예수를 때리면서 조롱하였다. 이미, 그들의 눈에 예수를 변호하려는 우리의 모습은 들어오지도 않았다. 아리마대 요셉과 그 외 몇몇은 이 율법의 축에도 들지 못하는 그들의 억지 재판을 거부하였고, 니고데모는 침묵 가운데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 결국 아무것도 고백하지 못한 채, 그는 병졸들에게 끌려가는 예수를 떠나보냈다.

어느덧, 열은 안개를 뚫고 솟아오르는 아침햇살을 맞이한 니고데모와 요셉 일행은, 새로이 마음을 다지고 재판장으로 향하였다. 더이상 물러날 곳이 없음을 알았기에, 그들의 마음은 무거워져만 갔다. 하지만, 그들의 각오가 무색하게도, 그들이 재판장에 도착했을

즘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었다. 예수를 메시아라 얘기하여 반역죄로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 등을 돌린 사람들, 그의 모습에 실망하거나 가야바의 사주를 받고 총독 앞에 당당히 나선 사람들, 제사장,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줄을 서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박으려 하고 있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을 비롯한 소수의 우리만이 예수를 변호하려 소리를 내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압도히 많은 청중들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니고데모는 빌라도 총독이 손을 씻으며, 예수를 살인자들에게 넘겨주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예전처럼, 변함없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제서야, 늦게나마 자신의 목소리를 내었건만, 세상은 니고데모의 뜻과 달리, 그들의 임의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모든 것이 허탈하였다. 피범벅이 되어 망신장이인 예수께서는 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기 시작하셨고, 그런 그를 옥하고 구경하려, 군중들은 예수를 뒤따라갔다. 니고데모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구해내시리라는 한가닥 희망을 붙들고, 행렬에 동참했다. 그는 예수께서 해처럼 밝게 변모하시어, 당신의 원수들을 무릎 꿇게 하시리라는 상상까지 하였다. 하지만, 그의 헛된 망상과는 달리, 이변은 없었다. 주님의 이름이 무색하게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는 별거벗은 몸으로 은밀한 곳까지 다 드러나신 채, 사람들과

도둑들의 조롱을 한몸에 받으셨다. 사람들은  
니고데모와는 다르게, 그가 스스로를 어떻게 구원할지,  
그의 최후가 어떠할지 궁금하여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예수의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하늘은 점점 빛을 잃어만  
갔고, 그를 구경하러 온 이들의 잔인한 기대는 여전히  
가실 줄 몰랐다. 마침내, 흑암이 구시까지 이어졌을  
때에, 예수께서 아버지께 당신의 영혼을 맡기시며 숨을  
거두셨다.





어느덧 낮 열두 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누가복음 23:44-46)



#### 4) 하나님은 사랑한다 (God love)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들이 한치도 그릇되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 없었다. 메시아에게 약속된 수많은 자손은 어디 있으며, 장수하게 될 왕의 날들은 다 어디로 떠나갔단 말인가? 모든 것이 헛되이 보였다.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오고 기다려온 것과는 달리, 메시아는 당신의 백성에게 난도질 당하고 만 것이다. 하늘과 땅이 울며 소리를 지른 날이었다. 하늘은 흑암으로 빛을 가리웠고, 땅은 절규하듯 심하게 흔들렸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거짓된 악인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선한 이가 무고히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구경 온 사람들과 로마 병사들마저 예수의 의로우심을 어렴풋이 느낀 마당에, 니고데모라고 모를리 없었다. 단지, 그는 예수께서 사람들의 수많은 거짓과 조롱에도 침묵하신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셀 수 없이 많은 기적을 베푸신 분께서, 당신의 죽음에 아무런 제재와 호소도 없이 괴로워 하시다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다른 이들도 자신들의 행동과 십자가에 달리신 이의 의로우심이 대조되어, 그들의 가슴을 찢어왔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죽음에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예수를 따르며 섬기던 여인들만이 십자가 주변에서

울며, 시신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니고데모는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 홀로  
우두커니 남아,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리를 채워  
나갔다. 그는 앉을 자리를 찾아, 그곳에 기대어 이  
상황을 천번 만번 공심었다. 니고데모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다. 모든 것이 허탈하고, 가슴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으로 인해  
침식되고 있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저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옹호하였을 때? 내가 진작  
그분의 편에 서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이리 쉽게  
일어났을까? 그의 머릿속이 온갖 잡생각으로 만연한  
와중에, 요셉이 그에게 찾아왔다. 니고데모는 친구의  
핏기 없이 창백한 얼굴을 마주하였다. 예수를 옹호했던  
우리도 뿔뿔히 흩어진지 오래였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들의 믿음만이 그들과 함께 할 뿐이었다. 한참  
동안의 정적이 지나고, 무력히 앉아있던 니고데모가  
먼저 입을 떼어, 그의 친구에게 말하였다.

**“요셉, 내 형제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없네.  
그분이 잡히셨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안 것이  
화근이었어…너무 늦게! 더이상 무엇이 그분과 우리를  
이롭게 한단 말인가?”**

언제나 희망찬 이야기를 전하던 요셉이었지만,  
이번만큼은 그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침묵마저 사치였기에, 무거운 정적이 지나고



얼마 안되어, 요셉이 대답하였다.

“…그저, 그분이 죽고 난 후…시체가 다른 죄인들처럼 쉬이 썩어 버려지는 걸 막는 게,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겠지…이 근처에, 내가 나중에 쓰려고 준비해둔 무덤이 하나 있다네. 그곳에 그분을 묻도록 하지. 빌라도 총독에게는 내가 직접 찾아가서 시신을 양도해달라 부탁하겠네.”

그 말을 들은 순간, 니고데모는 요셉을 붙잡았다. 그는 의회가 자신의 친구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인간적인 마음에 그에게 충고하였다.

“허나, 자네가 이 일에 나선다면, 저들이 가만있지 않을걸세.”

그 말이 부정하기라도 한 것마냥, 요셉이 바로 고개를 돌려 니고데모를 정면으로 쳐다보았다. 살짝 일그러진 그의 얼굴은 누구에게 뻔어야 할지 모르는 원망으로 가득차 있었다. 잠시 후, 그는 자신의 벗에게 쥐어짜듯 말을 내뱉었다. 그의 말은 그의 입술처럼 처절하게 떨어왔다.

“니고데모!…그분은 우리의 메시아였네.”

친구의 고백에, 니고데모는 더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어떤 고백도, 변명도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 될 수 없었다.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따르고 두려워 하였음을 인정하였다. 그럴기에, 이제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숨김없이 내어드리려 나아가길 결심한 것이었다. 그 어느 때보다 후회가 막심한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장사 지내기 위한 준비를 하러,  
각기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종들에게 명하여, 왕 되신 예수의  
장례 때 쓸 몰약과 침향을 가능한 많이 가져오라  
얘기하였다. 그의 종들은 주인의 명대로, 근방에 있는  
몰약과 침향을 있는대로 긁어모아 왔다. 니고데모가  
그것들을 섞어 수레 위에 담으라 하였고, 종들이 그  
명대로 다 행하니, 백근이나 되는 양이 수레에 실렸다.  
부족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나이도 잊은 채,  
물건들이 담긴 수레를 손수 끌고 다시 골고다로  
향하였다. 부족했다. 무엇을 쌀아도, 어떤 짓을 하여도  
터무니없이 부족하게만 느껴졌다. 내 주께 바치는  
마지막 예물이건만, 이 부족하고 차오르지 않는 마음이  
계속됐다. 그가 골고다 언덕에 당도하였을 때에는,  
요셉이 빌라도에게 시신을 양도받아 예수의 시신을  
내리고 있는 중이었다. 니고데모도 자신의 친구에게  
다가가 예수의 장례를 돕기 시작하였다. 해가 지면 곧  
안식일이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의 지인들에게  
허락을 구하고, 서둘러 장례를 진행하였다. 그들은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향료와 함께, 요셉이 사온  
삼베로 예수의 시신을 감쌌다. 그렇게 감은 시신을  
수레에 싣고, 그들은 그의 시신을 요셉의 새 무덤에  
안장하였다. 깨끗한 관도 없이, 슬퍼하는 지인들의  
행렬도 없이, 아무런 축사나 축복의 조문도 없이,

나사렛 예수께서는 이름 없는 부자의 동굴에 묻히셨다.

니고데모는 자신이 지금까지 느꼈던 공복감이 아닌, 자신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갈증으로 목말라하고 있었다. 그 갈증이 무엇인지는 골고다에 있는 십자가에 다다랐을 때에야, 겨우 깨달을 수 있었다. 예수의 시신이 아직 그곳에 매달려 있었다. 이미 늦었다는 후회가 목구멍에서 차오르는 걸 간신히 삼키고, 그는 유대인의 왕이 달리신 십자가 앞에 서게 되었다.

**‘나는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인이 되었구나…!’**

요셉과 같이 장례를 치르는 도중, 니고데모는 예수의 시체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눈은 고통으로 뒤집혀져 있었고, 손가락과 발가락은 경련으로 살짝 비틀어진 채 꺾여 있었다. 구멍난 갈비뼈 사이로 하얀 지방과 창자가 피에 범벅이 되어 빼죽 튀어나와 있었다. 갑자기 그의 마음이 저려오기 시작하였다. 창자가 쥐어짜듯 뒤틀리고, 가슴이 난도질 당하는 듯 하였다. 예수의 비참한 모습을 목격한 니고데모는 무너져 내렸다. 내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마침내 당신의 백성에게 찾아오셨으나, 환영은 커녕 비웃음과 저주만 받고 가장 비참하게, 가장 저질스러운 방법으로 죽고만 메시아. 이제는 그분의 주검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자신을 향한 원망이 가득찼다.

남들을 바라보며 그릇된 길을 간다 여겼던 자신도  
그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 살아있는 이분과  
조금만 더 말을 나눌 수 있더라면, 내 그 무엇을 바친다  
한들 아깝지 않으려만! 자신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항상 뒤에 머물러 있을 뿐이었다. 그의 친구  
요셉은 주 앞에서 그보다 더 용감하였고, 자신은  
존귀하신 분 앞에 한없이 천한 죄인일 뿐이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이 바라는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 그 사실은 니고데모 자신에게도 포함되는  
말이었다. 장례 구절을 입에서 읊조리던 니고데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예수의 장례 가운데, 자리를  
지키던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마찬가지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예수의 시신 곁에는 고인을 치장할 그  
어떤 물건도 존재치 않았다. 그분께는 당신의 것이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었다.





"나의 종이 매사에 형통할 것이니,  
그가 받들어 높임을 받고, 크게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전에는 그의 얼굴이 남들보다 더 안 되어 보였고,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상해서,  
그를 보는 사람마다 모두 놀랐다.  
이제는 그가 많은 이방 나라를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 앞에서 입을 다물 것이다.  
왕들은 이제까지 듣지도 못한 일들을 볼 것이며,  
아무도 말하여 주지 않은 일들을 볼 것이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품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찢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었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문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이사야 52:13-53:12)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비루한 바리새인이자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신학자였다. 그렇기에, 그의 주변은 그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일들로 점철되곤 하였다. 그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신의 선한 행동이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일이 없고, 자신의 공의가 주님께 합당치 않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 연유로, 젊었을 적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가르치던 율법교사였던 이 남자는 이제 막을 수 없는 시간에 몸을 맡기며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바리새인들의 허울 좋은 모습 사이에 있는 자신을 목격하고, 이에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중이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된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자신의 주변 사람은 물론이요, 하나님께 열납되어질 수조차 없다는 사실을, 자신으로 인해 예수의 진실이 바뀔 일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였다. 자신의 이름과는 달리, 그는 세상을 이기지 못한 자였다.



예수의 죽음 직후 벌어진 천재지변과 성전의 휘막이 찢기는 사건 등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 가운데, 어떤 이들은 불안감에 마음 졸이며 예전 자신들이 평범히 살던 곳으로 돌아갔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예수의 잔당들을 걱정하며 지냈다. 특히, 이리와 같은 가야바의 무리들은 예수의 제자들을 경계함과 동시에, 예수를 지지하였던 무리 또한 주시하였다. 예수를 옹호하였던 사람들은 두려움과 절망감으로 숨 죽이듯 지내었다. 그들이 언제 문책을 당하고 공회에서 쫓겨날지, 돌을 맞게 될지 모르는 일이었다. 예수의 지지자 중 하나였던 니고데모도 이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는 안식일 이후로, 단 한번도 자신의 집에서 나가지 않은 채, 그의 방에 틀어박혀 지내는 중이었다. 사람들은 그가 저지른 일로 두려워하여 숨어 지내는가 생각하였지만, 니고데모의 두려움은 더욱 깊은 곳에 존재하였다. 자신은 메시아의 죽음을 방관한 살인자라는 사실이 그의 머릿 속에서 떠나가질 않았다. 아직도, 그의 손에는 시신의 감촉이 전해지는 것만 같았다.

니고데모가 자신의 집 안방에 숨어 지낸지, 어느덧 며칠이 흘렀다. 니고데모의 안방은 더이상 낮에 창문을 열지도 않고, 밤에 등불을 피우지도 않았다. 기름이 동이 난 등잔과 같이, 그의 몸과 영혼은 철쭉같은 암흑속에 자리잡고 있었다. 니고데모의 삶은 남들이

보기에도 끝장이 났다 한들 과언이 아니었다. 예수의 시체를 요셉과 같이 장사지냈다는 소식은 이미 다른 지도자들의 귀에 들어간지 오래였고, 자신을 알게 모르게 점점 목죄여 오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정죄 가운데 그 어떤 즐거움도 가질 수 없었다. 떡에선 썩은내가 나는 듯 하였고, 포도주를 마시면 뱃 속 깊숙히 독한 악취가 올라왔다. 집 바깥 사람들의 대화는 자신의 죄를 고발하는 목소리인 양 들렸다. 이제는 조그만 일에도 스스로를 감당키 어려워졌기에, 집안에 숨어 지내는 것이 그나마 그에게 있어 최선이였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두려워졌고, 예배드릴 엄두가 나질 않았다. 니고데모는 이제 곧 다가올 그의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신의 두 눈으로 메시아의 최후를 지켜보았던 그에게, 이 세상은 더이상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주 하나님을 경외함이 가장 현명한 지혜이거늘, 하나님을 저버린 다윗의 아들처럼 이리도 어리석었던 말인가! 이제 그에게 남은 건, 자신이 죽어 하나님 앞에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길 뿐이였다.

**‘하나님께서서 과연 나 같은 자를 용서 하십니까? 아니, 바라 보기는 하시려나?!’**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부활을 상징하는 세마포가 대체 무슨 소용이 있으랴! 며칠전만 하더라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꿈처럼 느껴졌다. 주님의 구원을 기다린 자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적대하는 이들은 그를 거부하고 시해하였다. 죽음이 이토록 가까운 적이 없었기에, 니고데모의 몸과 마음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떨려왔다. 언제, 자신이 저지른 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 모를 일이었다.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영두도 나질 않았기에, 그를 감싸고 있는 이 절망감은 새 날이 밝아와도 그에게서 떠나가지 않았다. 시간이 이대로 멈추어 자신을 가만히 내버려 두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어두운 저녁은 자신을 반기듯 어김없이 찾아오고 있었다. 혼자만 남은 이곳에 기쁨은 보이질 않는다. 집안 식구들과 종들은 하나 둘 잠자리에 들기 시작하여, 고요한 적막만이 니고데모를 반기고 있을 뿐이었다. 달빛도 없는 방 안은 밤보다 캄캄하였고, 창문 사이로 빼꼼히 고개를 내민 별빛만이 그를 몰래 지켜보고 있었다. 신랑의 신부들이 수치심에 침묵하여, 호흡이 있는 생명들의 귀가 닫힌 밤이었다. 바로 그 때였다.

### ‘저녁...’

사람 하나 없어야 할 바깥 마당에서, 바람이 불 듯이 인기척이 났다. 니고데모의 놀란 가슴이 두려움으로 요동쳤다. 지금, 이 시간에 자신의 집에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을 터였다. 그는 조심스레 방 문을 열어 누가 있는지 살피었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여전히 반짝이며, 그에게 인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바깥 뜰에는 한 사람이 여전히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얼굴이 보이지 않았기에, 니고데모는 두려운 마음에 가슴 졸이며, 그의 앞에 있는 사람에게 물었다.

**“자넨 누군가? 가야바가 보낸 사람인가?”**

하늘을 향하던 눈길이 니고데모에게 닿았다. 이윽고, 익숙한 목소리가 니고데모의 귀에 똑똑히 들려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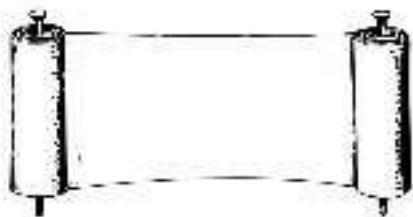
**“니고데모, 나의 형제여, 이제 더이상 숨어 있을 필요가 없으니 걱정 마시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의 죽음에 기뻐하고, 총추며, 편안한 마음으로 자리에 누웠다. 그들은 두 해와 달이 뜨고 질동안 자신들을 환히 비출 빛이 없음에 기뻐하였고, 모든 주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메시아의 죽음에 슬퍼하며 절망에 빠져 살아왔다. 하지만, 다시는 떠오르지 않을 태양을 그리워하며 집과 동굴에 틀어박혀 전전긍긍하던 이들에게,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께서 그들에게 당신을 알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를 나타내셨다. 이로써, 주님께서는 당신을 통하여 아버지의 백성을 한 명도 남김없이 구원해 내실 약속을 확증하신 것이다.

니고데모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 형체가 있는 말씀은 늙어 눈가가 흐릿한 그에게 다시 한번 손을 내밀고 있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였다. 믿을 수 없었다. 다시는 듣지 못할 목소리였건만, 지금 그의 귀에 이리 뚜렷이 울리고 있었다. 그리고, 목소리만큼이나 생생하게, 지금 그의 앞에는 예전처럼 자신을 향해 손을 내미는 인자께서 그를 기다리고 계셨다. 이 기쁨을 견뎌낼 하나님의 백성은 없었다. 마침내, 니고데모는 자신의 안방을 뒤로 한채, 그의 주님께 나아갔다. 집 위에 떠 있는 하늘의 별들은 그들을 향하여 더욱 반짝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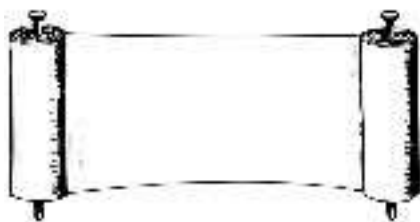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요 1:1-5)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요한복음 20:28, 29)





*Beloved,*  
I wish above all things  
that thou mayest prosper  
and be in health,  
even as thy soul  
*prospereth.*

III John 2